

SPACE follows SPIRIT-Quest for "Holiness" in Worship Space

“Form follows function-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는 20 세기에 활동했던 현대 건축가들이 내세운 신조다. 그들은 산업 혁명 이후 발달된 과학 기술을 건축에 최대한 응용했다. 논리적 사고의 뒷받침과 다양한 건축 자재의 생산으로 원하는 건축의 조형과 외부공간을 편리하게 만들어내었다. 그동안 일반 건축 설계, 시공현장,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교회지도자들의 앞에 서서 교회 건축을 기능성, 경제성 및 실용성을 강조하며 지어왔다. 마찬가지로 교회 예배공간도 기술 발달의 혜택을 입어 현대화 되었으며 당대의 건축가들에 의해 계획, 연출 되어왔고 그들의 철학, 개념에서 나온 지침서의 안내를 받아왔다.

예배공간은 “function follows faith-기능은 믿음을 따른다” 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일단 전통에 내려오는 교회 건축 기본원리들: 장방형의 택지에 동서의 축을 살려 건물을 앉히고 제단을 동쪽에 입구를 서쪽에, 그 입지 조건의 꺾에 따라 중정과 사제관, 교제 실, 식당 등의 기능들이 믿음 생활의 요구를 채운다. 예배공간은 교회 건물의 전 반적인 외모와 내부를 결정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부수적인 기능들로 구분해 본다면 대략 다음 6가지로 나누어진다. (1)모임 공간(Gathering Space), (2)이동 공간(Movement Space), (3)회중 공간(Congregational Space), (4) 성가대 공간(Choir Space), (5)제단-성찬식 공간(Altar-Table Space), (6)침례/세례 공간(Baptismal Space)등이다. 제단 공간에는 각종 가구 : 설교대, 강대상, 성경 진열대/독경대, 설교자/집례 자 좌석, 보조 책상, 난간/수찬대, 플래카드/문장 기 등이 자리를 잡는다. 그 외 각종 절기행사나 특별 행사가 벌어질 때 필요한 집기들이 진열된다. 위의 여러 가지 공간들 중 예배공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역시 모임 공간(Gathering Space), 이동 공간(Movement Space), 회중 공간(Congregational Space)으로서 이 세공간의 합일이 교회건물의 내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부 조형을 이루었다.

모임 공간(Gathering Space)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모여 친밀한 교재를 나눌 수 있을까?’에 목표를 두었다. 차량 진입이 원활하고 방문자들의 주차가 편리한 Parking 장, 안내가

원활한 입구 홀, 새 신자 환영을 위한 커피 및 다과 테이블, 교회 행사를 알리는 게시판, 방문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화장실 등이 배치되어있다.

이동 공간(Movement Space)은 ‘어떻게 하면 예배 집례자들이 가장 수월하게 통행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앙통로는 입례 시에 설교자, 집례 자, 찬양대원의 행렬 혹은 기타 봉사원들의 이동을 돕고 양쪽에 있는 통로는 안내원들과 헌금 원들의 운행이 편해야했다. 좌석 앞뒤로 혹은 옆으로 작은 통로들은 성도들의 원활한 이동을 고려하였다.

회중 공간(Congregational Space)은 ‘어떻게 하면 온 성도의 예배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까’에 관심을 모았다. 가능한 많은 좌석을 확보하고 회중석은 일정한 좌석 수 단위로 구분되어 있어 비좁지 않게 하였다. 벤치 형 좌석에는 개체교회의 사정에 성도들의 이해도와 예배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성경, 찬송집, 주보, 봉투, 안내서등의 진열대가 놓여있다. 각자 좌석은 찬양, 율동등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단상과 설교자를 향한 시각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교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위의 세 가지 공간은 각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왔다. 기독교 건축사를 살펴보면 외부 조형은 물론 예배공간도 다채롭게 변화된 것을 발견한다. 예배공간은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나 직접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곳이다. 그러나 그동안 예배 공간은 믿음이 기능을 뒷받침하고 기능은 형태를 결정하여 자연적인 부산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당 시대적 배경과 뒷받침하는 이념, 신학들을 조사해보면 또 다른 요소들이 예배공간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일반 건축가들의 입장에서 벗어나 성서신학, 기독교사 혹은 목회 실천 신학의 배경의 입장에서 예배공간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Space follows Spirit-공간은 생령을 따른다**’ 고 지적 할 수 있다. 여기서 Spirit은 18세기 중엽 Wesleyan들에 의해서 강조되었듯이 ‘하나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의 상호 협동으로 전개되어지는 능력’ 으로 규정하겠다.

Spirit(생령)은 Holy Spirit(성령 혹은 하나님의 영)과는 구별되며 ‘당 시대 교회 정신(Spirit)’에 가깝다. 기독교사내에서 예배공간을 분석할 때 Spirit(생령)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다음 세 가지에 근거한다.

1. 성령(Holy Spirit)은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의 새 창조가 필요한 곳에 틈새(여유 공간)를

제공하여 생명력을 공급하고 매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의 영(spirit)과 합일을 이루어 당대의 예배 문화 창조를 위한 예배공간을 조성한다.

2. 그리스도인의 영(spirit)은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의지와 염원의 결정체이며 그들이 사는 시대의 개인, 교회, 사회에 가장 절실한 문제들에 대한 분별력을 찾는다.

3. 당시대 교회정신/생령(Spirit)은 성령(Holy Spirit)과 그리스도인의 영(spirit)의 합일로 개인, 교회, 사회 및 세계/우주를 향한 특별 의식을 느끼고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 가장 합당하게 살아 움직여 대처할 뿐 아니라 예배공간도 창출해낸다. 위의 이해에 준해서 기독교인의 영성이란 그리스도인들의 영들과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한다.

이 글은 ‘Space follows Spirit-공간은 생령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예배공간을 살피고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I-종교개혁이후 20세기 까지 북 미주 지역에서 변화해온 개신교 예배 공간을 살펴보고, II-현 시대에 개신교 예배가 겪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III-예배공간에 대한 초기 개신교 신학, 감리교의 이념들 그리고 신학이외의 타 분야의 관점을 분석, IV-새로운 예배공간을 위한 대안제시이다. 이글은 다음의 내용들: (1)각 기능의 공간 배열 방식이나 반영구적인 전자 오르간이나 십자가의 위치, (2)예배 중 가변성을 지닌 가구, 집기의 위치,(3)절기에 따라 달라지는 예배순서 혹은 특별 기념, 경조사 예배 시 의 공간의 조성 등은 다루지 않았고 좀 더 원초적인 문제: 건물 내부의 예배공간에 거룩/신성함(Holiness)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I.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예배공간의 변화:

16세기 종교개혁이후 예배 공간배치의 변화는 다음 두 가지의 근거로 요약된다.

1)회중의 시각을 설교대의 말씀선포 자에 고정시키고(Direct Visibility), 2) 청각을 통해 성경말씀과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점(Correct Audibility)이다. 인쇄술의 발달로 글과 언어를 통해 성경 말씀의 이해도가 향상되었고 말소리를 통한 청각적 터득 효과가 강조되었다. 중세 기독교의 시각적 중심 문화의 요소들: 스테인드글라스, 조각품, 성화 등은 서서히 사라지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말 소리를 통해 임재하시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있다**는 개신교 신학의 주장이 뒷받침한다. 개혁자들이 내세운 위의 원칙에 따라

중앙에 놓였던 성찬 대 보다는 말씀 선포되는 설교단에 강조를 두었다. 이로 인하여 예배공간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1) 중앙 배치 형으로 원형, 정사각형 팔각형 등의 유형과 (2) 방사형의 대공연장 형이다. 루터 교회나 성공회 그룹이 여전히 시각적인 연출: 성직자의 예복, 제단 장식, 장식된 십자가들, 정교하게 장식된 성배와 세례 반/침례대 등에 강조를 둔 High Church 예배문화를 이끈 반면, 청교도, 장로교, 회중교도들은 단순한 검정 학사 가운, 검소한 성찬 테이블, 단순한 성찬 기재 등으로 Low Church 예배문화를 이끌며 한동안 북 미주 신대륙에 영향을 끼쳤다. 북 미주 지역에 지난 3 세기동안 변화된 예배공간은 다음 8가지로 요약되겠다.

(1) 청교도 회당(Meeting House): 미국 청교도들은 신대륙에 정착하여 초기에는 개인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당을 짓기 시작했다. 총교도 양식의 표준이 되었던 교회 건물은 1666년 영국 런던의 대화재로 인하여 106개의 교회가 전소된 후 지어진 56개 교회의 모델에서 시작되었다. 천문학자이자 영국 국교 감독이었던 Christopher Wren (1632-1723)의 지휘로 세워졌던 Wren Church가 그 예이다. 그 특징은 설교 선포자의 위치에 회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말씀 듣기가 강조된 예이며 마루와 회벽으로 치장한 단순한 내부공간이었다. 고대 로마의 공회당(Basilica)의 평면을 기본으로 값싼 재목과 벽돌로 외장이 이루어졌으며 경사지붕과 뽕족탑이 특징이다.

2) 말씀선포의 집(Preaching House): John Wesley(1703-1791)는 Charles(1707-1788) 와 함께 신자의 경건과 행위를 강조하여 영국 성공회, 청교도, 중세의 경건주의를 합일(Tertiary Tradition)한 내부 공간에서 성찬식과 금식, 기도회중심의 예배를 드렸으며 Norwich의 Octagon Chapel(1756년 경 완공)이 그 당시 감리교 교회의 모델이었다. 이 교회들은 Methodist Chapel(감리교 예배당)이라 알려졌는데 북 미주 지역 교회 건축에 영향을 주었다. 그 특징은 Wren Church의 지붕 뎅힌 현관주랑이나 뽕족탑은 없었지만 발코니가 설치되었고 약간 높아진 단상엔 설교대와 성찬대가 위치하고 그 주위로 고리모양의 난간이 설치되어 회중석과 구분되었다.

3) 공연장 교회(Amphitheater Church)-18세기 중엽 John Wesley나 George Whitefield(1714-1770)의 설교 및 부흥 성회가 열렸던 공간이다. John Wesley Journal에 의하면 Gwennap Pit 지역에 약 2만 명쯤 모인 곳에서 집회를 인도했다고 기록되었다(1776년). 이차 대 부흥 전도 집회(2nd Great Awakening Movement)가

열렸던 1880년경에는 방사형 평면의 공연장 예배공간이 뉴욕 지역과 큰 도회지에 상당 수 재현되었다. Charles Finney같은 극적인 호소력과 웅변술의 설교자들은 바로 이 공연장 예배장소를 낙오된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성막소(Tabernacle)의 이미지로 부각시켰다. 공연장 예배 공간의 특징은 설교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강단이 넓었으며 회중들과의 교류가 더 가깝도록 구성되었다. 대규모의 회중을 수용할 수 있는 집회공간이 요구되고 시청각 및 음향효과 시설이 주요시되고 목사/설교자들의 권위와 영도력(Charisma)이 강조되었다.

4) 고딕 복고풍 교회 (Gothic Revival Church)-19세기 초기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교회 건물의 이미지가 점점 신앙의 주체성을 잃어감에 따라 기독교 건축양식의 뿌리를 찾기 시작했다. 영국령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 그 근원을 중세시대의 고딕양식에서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고딕 양식이 바로 자신들의 선조들이 예배드렸던 청교도 회당(Meeting House)의 원조가 됨을 확인했다. 교계 지도자들은 고딕 양식의 재현을 통하여 양분되었던 예식주의 로마 가톨릭교회와 비 예식주의 복음전도의 개신교를 하나로 융합하는 원래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추구하였다. 이전 교회 양식들의 양면성: 속(내부 공간)과 겉(외부형태)이 다름을 지적하고 내부와 외부가 일치될 이룬 진실 된 ‘크리스천’ 양식: 초대 교회 십자가 형 평면에 하늘로 향하는 외부 조형물의 고딕양식 교회를 지어갔다. 이에 따라 예배문화도 재정비되고 예배의 목적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신앙심 고취에 중점을 둔 ‘찬양과 경배’ 예배를 연출했다.

5) 로마네스크 복고풍 교회 (Romanesque Revival Church)-19세기 중엽부터 북 미주 지역에 이주민이 늘어나고 도심지가 형성 발전됨에 따라 상가 건물과 공공건물들이 대중화되었다. 그에 따라 사회 및 정치를 뒷받침하는 민주주의 정신과 그 제도가 교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밖의 세상과 하나님 안의 예배장소가 일반 공공건물들과 구분 지어져 교회건물은 그 겉모양부터 달랐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여 교회는 지역사회의 중심지가 되고 가정과 사회를 연합시켜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시립 공공건물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교회건물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실체화했고 그에 따라 예배공간은 대 공연장 모습을 재 활성화시켜 이전보다 더 일반 교향악당이나 공공극장처럼 그 안락함과 공간연출효과에 치중했다.

6) 지성소 교회 (Sanctuary Church)-19세기 후반에 들어와 사회구조가 점점 민주화되고 교회건물의 외모가 관공서 모습을 갖추게 됨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의 공적인 믿음생활이

강조되었다. 그들은 일반화되는 믿음 생활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가정의 안정과 마음의 평정을 갈망하였다. 이때에 교계지도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가족의 개념을 더 강조하여 가정집 모양의 지성소가 예배처의 모델이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믿음의 가족 안에서 함께 사시는 곳(출 25:28)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들은 마태복음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6장 6절)”는 구절에서 골방을 작은 가정집으로 연결 해석하고 예배장소가 가정집 이어야함을 재확인시켰다. 이에 따라 이전의 당당하고 존엄한 로마네스크 호화로운 양식을 피하고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가정집 형으로 그리스도인의 양육을 기본으로 두었고 다른 하나는 유기체 교회(organic church)형으로 낭만주의와 초자연주의 흐름대로 자연과 어우러진 예배공간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였다.

7) 공공 사회 건물 예배당(Institutional Building Church)-19세기를 지나 20세기에 접어들어 각종 교육기관이 세워지면서 민주주의 교육이 강조되고 기독교 교육도 활성화되었다. 그에 따라 주일학교(Sunday School)교과과정이 체계를 잡고 지적 사회적 영적지도자 양성을 위한 신앙교육이 중요시되었다. 그에 따라 주일학교 시설들이 예배 공간형성에 한몫을 차지했다. 기독교 각 교단의 장벽을 넘어 주일학교 교육제도로 연합되고 복음 주의교회의 이미지를 되살려 가정과 선교사역이 강조되었다. 또한 사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도 고려하여 그 본질을 예배, 가정사역, 선교에 두었다. 이즈음 예배공간은 신성한 장소로 여겨진 가정과 믿음생활에서 요구되는 경건함을 겸비하여 성인 반 뿐 아니라 유아부에서부터 각 연령, 학년별 주일학교 교실들이 예배공간과 조화를 이루어 민주적인 공간배치를 추구하였다.

8)신 고딕 양식과 대공연장 교회(Neo Gothic Style and Great Hall Church)-20세기 전반에 걸쳐 교회 건물 양식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현저하게 부각되었다. 한 예가 교회의 사명을 신앙 갖춘 민주 시민 육성, 사회 정치 정의 구현에 둔 교회들은 신 고딕 양식을 재부흥시켰다. 그 골자는 초대교회 십자가형 평면에 건물 안팎의 동일성에서 진실성, 숭고함, 웅대함을 드러내고 전통에 내려오는 예식을 강조한 것이다. 다른 예는 교회의 사명이 복음전도와 개인구원임을 강조하고 공연장 교회를 발전 시켜 양적으로 증가하는 서민 중산층 회중을 수용하도록 대 공연장 예배공간을 조성하였다. 이들은 도심지나 변두리의 상가건물, 산업용건물의 내부를 예배공간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며 본래의 교회양식의 탈에서 벗어났다. 그 예배공간의 특징은 전통에 내려오는 요소들을 단순화시키고 반면에 열린 찬양예배의 특성을 개발해갔다.

위의 8가지 유형은 청교도들이 북 미주에 정착한지 지난 몇 세기 동안 현저하게 나타난 예배 공간들이다. 위의 변화들은 Holy Spirit(성령 혹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인들의 영(spirit)이 합하여져 당 시대 교회 정신/생령(Spirit)이 되어 사회, 정치,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당 시대에 가장 합당한 대응책으로 나타났다. 그러기에 어느 유형의 예배공간이 더 옳고 그 외는 그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예배공간의 연출은 교계 지도자들이 기도/말씀/영성중심 위주의 생활 중에 당시대의 세상사를 간파하고 회중들의 갈급한 심령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 하는가, 도래할 시대를 위해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가 하는 현장신학의 이론/실천의 대책과 직결됨을 알 수 있다.

II. 현 시대에 개신교 예배가 겪는 문제점들

그렇다면 현시대에 대중화되는 개신교 예배공간들은 어떤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가?

건축공간은 당 시대의 물질/정신문화의 소산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문화 특징 중 다음 세 가지가 현 시대에 재현되어지는 개신교 예배 공간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1)기능주의(Thick Functionalism)-그동안 기능주의로 발전되어온 개신교 예배 공간에서는 전통예배에서 경험했던 신성함을 경험하기란 불가능해졌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예배공간과 비 예배 공간이 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 기인한다. 현대인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밀린 책임과 긴장 속에서 기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다가 그 삶의 연속이 예배공간으로 이어진다. 감리교 교리의 저자 Ted A. Campbell은 현대인들은 예배 밖에서는 물론 예배에 참석하여도 하나님 영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기독교 예배문화가 신성함을 잃어버린 그 시작은 근대와 현대를 거쳐 오면서 자연과학 문화에 의존하면서부터였다고 보았다. 바로 단 시일 내에 가장 경제적인 재료로 교회건물 안에 실용적인 용도만 만족시켜왔다. 이렇게 기능만 만족시킨 공간에서는 웨슬리 전통에 강조되었던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 나 “거룩/신성함” 을 체험하기 어렵다.

(2)자본 주의(Thick Capitalism)-개신교 교회들은 현대에 들어와 더욱 외적(금전적 풍요, 물질적 증가, 조직적 강화, 영향력 행사, 멤버십 증가 등)으로 성장해왔다. 북 대서양 여러 개신교국가들은 여전히 강세를 지닌 자본주의혜택으로 예배 중에 선교, 구제, 절제, 검소 등을

강조하지만 자본주의 경영원리와 그 지도력으로 움직여나간다. Meredith 대학에서 종교 철학부의 교수이자 North Carolina 근교의 1500명 규모의 연합감리교회의 교육 담당 Debra Murphy는 특별히 현대인들이 겪는 과잉 소비 현실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 유아 적부터 습관 되어져 개인화 사회화 되어왔음을 지적했다. Murphy는 사람들의 습성은 신체적, 물리적, 감정적, 심리적으로 잠시 만족을 충족하는 것을 먼저 선호 하고 그것이 생활 습관으로 연결되는 점을 강조하고 교회 밖 세상의 산업 소비 경제화 문화를 교회안의 예배가 동조하는 현실을 간파했다. 그녀는 상당수의 개신교회들이 교회 밖의 기업체들과 현대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배공간을 위하여 최고의 음향효과에 그리고 각종 최신 기재들을 들이며 시장 경제형 예배(Market Driven Worship)를 주도해 나감을 꼬집었다.

(3) 혼합주의(Thick Syncretism)-북 미주는 합중국으로 민족과 인종 차별을 초월하여 연합된 국가임을 자처한다. 하지만, 여전히 인종차이와 특정 민족우월주의가 만연하다. 그로인해 몇몇 특정 조직체들의 과대 애국주의현상이 교단에 관계없이 개신교 다수교회들의 예배 안에 까지 영향을 주는 실정이다. 지난 금세기 동안 미주내의 기독교의 영향력을 강조한 종교학자들에 의해 기독교교육이 민주 시민 양성교육으로 활성화시켜 왔었다. 특히 9/11 사태이후 교회의 개념을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 모형인 Polis 개념에서 찾아 미합중국(Polis)의 존속에 기여하는 신앙 단체들(Polis' cell)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고 지나친 애국주의 교리강조나 홍보 장려하는 점이다. 예배순서에 복음에서 가르친 ‘평화의 기도’를 넣으면서 한편으론 미합중국의 전쟁 승리를 비는 기도, 성조기의 전시적 효과 강조, 애국가를 부르는 예 등이다. 위의 열거한 특징들로 예배문화를 창출해 나가면 결국 Debra Murphy가 지적한대로 북 미주 교회들이 중세의 기독교 제국 체제처럼 유럽의 경제 강국들과 함께 합심하며 포스트 모던 후기를 지배해 나가는 서구 기독교 교국(Western Christendom)에 합류하는 처사일 것이다.

위의 세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하면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의존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과학적 사고에 의존하고 자동 기계화 및 이성적 실용화에 의존하여 믿음생활을 영위해나가는 점이다. 비록 예배 중에 가족 중심의 가치관, 사랑, 정의, 자유를 외치지만 교회 안의 젊은 세대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예배 안에서 심령의 고갈 상태를 해결치 못한 성인세대들은 대중화 영성(Pop Spirituality)프로그램에서 찾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문화가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배공간에서는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리처드 니버의 주장대로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재로 재현하는 예배 문화로 승화시켜야 하겠다. 위 의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기존 예배문화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요소들: 예배 경험의 신학적 해석, 전통예배들의 진수들, 인간의 종교 심성 등을 재 숙고해 봄이 바람직하다.

III-초기 개신교 신학, 감리교의 이념, 신학이외의 타 분야의 관점에서의 예배 공간

19세기 말에 독일 신학자이자 Rudolf Otto는 기독교 예배경험을 독일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로 풀어나갈 때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님 나라 선포(Proclamation of God's Kingdom on Earth)”와 “예수님의 심성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라 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속에 나타난 신성을 경험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모았다. 그는 삶의 방식, 생각 구조, 믿음의 표현 등이 초대교회 시대와는 다른 현대사회에서 가장 합당한 방법은 십자가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라 보았다. 그는 예수님의 심성의 하나를 거룩/신성함(Holy)으로 간주하고 신앙인들이 거룩/신성함을 의식과 무의식 세계에서 경험하게 되며 특별히 성찬식의 묵상, 기다림, 교제와 나눔 속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개신교 신학의 선구자 Paul Tillich은 개신교의 원칙이 원래 의미 “Protestant” 즉 세계모두를 향한 연민("a pathos for profane")임을 강조하고 인간을 결박시키는 모든 사슬로부터 자유로움을 강조한 반면에 오직 성례의 삶(Sacramental life)에 결박되는 신앙생활을 강조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예배공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이어야 한다. 로마 가톨릭교회가 신성함을 물체 화, 구체화 시킨 점과 다르게 개신교의 예배는 말씀(Word)과 성례(Sacrament) 중심이므로 예배인도자나 설교자의 독주보다는 성도의 화합과 참여를 역설하였다. Tillich의 신조: “Ultimate Concern”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배공간은 그 안에서 성도들의 궁극적인 관심사를 내어놓고 거룩/신성함을 체험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예배 공간 창출에 대하여 고민하는 자들은 다음 두 가지 질문: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신성함을 체험할 수 있을까?’와 ‘체험한 그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의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함을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예배공간은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신성한 텅 빈/열려진(Sacred Emptiness)공간을 의미한다.

웨슬리 전통 신학적 근거

그렇다면 저자 자신이 믿음을 키우고 목회 사역을 해 왔던 감리교 예배공간의 특징은 무엇인가?

웨슬리와 그 형제들에 의해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대는 계몽사상 운동과 근대

개인주의가 만연했던 때이다. 그 당시 영국 성공회의 예배: 시각적인 연출을 강조한 성직자의

예복, 제단 장식, 정교하게 장식된 십자가들, 성배와 세례 반 /침례대 등에 의존하는 형식 즉,

기존 High Church 예배문화와 달리 감리교도들의 예배는 다른 반체제 예배문화를 이루었다

초대 감리교 예배의 핵심은 “Holiness”의 체험에 그 목표를 말씀과 성찬식이었다. 웨슬리가

정의 하는 ” Holiness”는 신앙인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하지만 그 체험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영성에 젖어 영육 간에 신령한 삶 즉

성화(Sanctification)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웨슬리는 예배 순간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계시록 1:20)” 처럼 되어지길 추구했다. 그리하여 예배 안에서

갈망하는 하나님의 거룩/신성한 신비에 대한 경외감을 성경을 통한 말씀선포와 성찬식에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체험하도록 이끌었다.

인류학, 사회 문화학, 심리학적 근거

인류학적 관점(Anthropological Perspective)-집합체가 한 장소에 모여 벌이는

종교행위는 마치 'text'를 통해 그 의미와 목적을 알아내듯 예배에 참석하는 개인적 및 사회적

동기들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인류학적으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의식 깊은 곳에서 신성한

대상을 향한 종교심성을 지니고 그것을 예식으로 표출한다고 설명한다. 인간 각자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영성력은 예배 참여로 인하여 의식세계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자기들의 궁극적인

관심사를 표출시킨다. 각 개인은 공동 예식을 통해 각자가 받은 종교적 체험에 절대성과

설득력을 부여한다. 참여자들은 예배행위를 통해 정서를 키우며 서로 무언의 상호 의사소통을

이룰 뿐 아니라 종교생활에 필요한 지식, 도덕, 규범 등을 터득하여 연대의식을 고조한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는 예배공간의 특징은 회중의 의식세계는 물론 무의식 세계까지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하고 각 집합체의 본질에 맞는 독특한 예배문화를 이끌 수

있어야한다.

사회 문화학적 관점(Sociocultural Perspective) - 예배는 참여자들의 사고, 믿음, 행동, 가치관 등이 대중 언어, 찬미 음악, 진행 순서 등의 매개체와 조합되어 신성한 대상에게 연출된 환경: 공간-시간-예식을 말한다. 사회문화학적으로 인간은 예배를 통해 믿음 생활의 기본 요소들: 언어, 지식, 행동 규범 등을 터득하고 인품과 신분형성을 해나간다고 설명한다. 예배 안에서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소그룹 등의 압도적 출현을 피하며 조성된 공동체의 의식을 강화시킨다. 예배는 전통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존 전통에서 문제점들을 찾아내 전통을 재정립 하여 발전시킨다. 그러기에 예배 공간은 단순히 종교 이념, 믿음의 신조 등을 물려주는 기능을 넘어 참여 당사자와 신성한 존재가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고 자신의 정체도 발견하는 곳이다. 자신의 존재를 그 만남 속에서 확신하고 개인에게 필요한 믿음을 키우며 공동체에 요구되는 활력소가 생산되는 현장이다.

심리학적 관점(Psychological Perspective)

인간은 예배참여를 통하여 거룩/신성함에 대한 심리적 욕구와 절대 의존도를 표현한다. 이십세기 초의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William James는 인간이 종교적 경험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겪는 절망감 등을 극복하게 되고 인생에 필요한 절대적 가치성을 찾게 되는 “귀향(coming home)”의 체험을 한다고 보았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개인들이 종교경험을 통해 (1)자신의 삶에 생기를 부여하고 인생에 성취감을 가져온다. (2)자신과 자신주위의 사람들을 대할 때 확신, 평온, 연민을 갖게 된다. James가 다룬 개인적 종교경험은 예배참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James가 개인적 경험에 강조를 두었지만 그 외 사회적 측면에 강조를 둔 다른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1)각 참여자들은 예배를 통해 조직체에 요구되는 성품을 계발할 뿐 아니라 조직체의 연대감을 증가시키고 (2)감성(feeling)과 지성(mental state)을 통해 거룩/신성함(Holy)을 경험한다는 점이다. 거룩/신성함을 체험한다는 말은 이성적면: 미덕(Goodness)과 비이성적면: 신령함(Numinous)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거기서 얻은 활력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키우고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 점이다. 또한 그러한 체험은 개인의 삶에 권능을 부여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강령과 장정들을 더 발전시켜나가는 힘의 공급처임을 강조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예배공간은 참여자의 감성과 지성이 신령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위의 세 견해를 정리해보면 예배공간은 참여자들의 독특한 믿음이 구체화되는 현장이고 참여자의 감성, 지성, 심성이 거룩/신성한 존재와 만나 자신이 변화되고 공동체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현장이라는 점에 초점이 모인다.

IV-새로운 예배공간을 위한 대안:

그동안 목회자들은 건축가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모여 친밀한 교재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집례자들이 가장 수월하게 통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 성도의 예배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까’에 관심을 쏟았다. 하지만 앞으로의 예배 공간의 변혁을 위해서는 Paul Tillich의 조언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와 ‘경험한 그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로 바꾸어 질문하고 그 해결책을 위해 몸소 거룩/신성함을 구하고 찾아야 하겠다. 위의 제언들: 종교개혁이후 20세기 까지 북미주 지역에서 변화해온 개신교 예배 공간의 예; 현 시대에 개신교 예배가 겪는 문제점들; 초기 개신교 신학, 감리교의 이념들 그리고 신학이외의 타 분야의 관점들은 나름대로 더 비평과 보완이 되어야 하겠다. 단지 이 글의 결론으로 다음 세 가지: Gathering Space에서 Liminal Space로; Movement Space에서 만남을 장려하는 Numinous Space로; Congregation Space에서 성찬에 화합 참여하는 Communion Space로의 공간 변혁을 제언하고 싶다.

Gathering Space에서 Liminal Space로: Liminal은 인류학자들에 의해 주로 사용된 단어로 그 어원이 라틴어 *Limen(Threshold)*에서 유래되었다. Liminal은 어떤 특정한 공동체가 지닌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로 그 그룹이 대중사회에서 물러나 새 공간 안에서 그들 그룹이 형성되어지는 가치관과 새로운 질서들을 만들어 지켜나감을 의미한다. 교회는 세상의 환경과 구분지어지는 곳이기에 예배공간의 심장부로 들어오기 전 liminal space 를 두어 점층적인 물리적 심리적 영적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중세 교회 건축에서는 전정(vestibule), 로비(Foyer), 회랑(Cloister)등의 공간들이 구비되어 더 구체적으로 교회 바깥세상과 교회 내부의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역할을 하였다. Liminal Space를 진입할 때 서서히 거룩/신성함에 감싸이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에 생동력을 주어 새로운 결단으로 세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간이다.

Movement Space에서 Numinous Space로: Rudolf Otto는 'Numen'을 신앙인들이 지니는 감성/심성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과 일치 시켰다. 그래서

Numen의 특징을 표현할 때는 합리적인 어휘로 표현 할 수 없는 상태 즉 아름다운 음악 선율을 설명할 때 언어의 표현력으로 부족하지만 ‘아름답다’ 혹은 ‘경외스럽다’ 라는 형용사로 표현된다. 말로 가르칠 수 없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Movement Space는 단순히 회중의 이동을 돕는 복도의 기능성에만 치우쳐 간주해왔다. 하지만 이 곳에서도 “wholly other”의 신비로움을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으로 창출시킬 수 있는 것이다. 천정고의 높낮이, 조명도의 변화, 채광의 조도 조절, 그림자의 연출 효과, 성화나 촛불설치 등으로 기능에 치우친 공간을 생령이 차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Congregation Space에서 Communion Space로: 예배를 직접 드리는 곳은 특정한 신학이나 교리중심이기에 앞서 그리스도 중심(Christocentric)의 공간이 재현되어야 한다. 이곳은 교회 밖의 세상질서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부활 그리스도의 임재: **생명의 떡과 언약의 잔을 상징하는 초대와 나눔의 성찬 테이블**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Liminal Space 가 진입 공간이라면 Communion Space 는 인간 세계를 넘어 앞으로 도래하는 새롭게 열리는 세계의 재현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식탁: 생명을 공급하는 떡(Bread of Life)과 영원한 언약(Eternal Covenant)을 상징하는 잔이 예배 공간의 중심이 되어 식탁에서 제시하는 넉넉함과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다. 바로 이 Communion Space 중심의 예배공간이야말로 교회는 두 가지 기능 즉: 하나님의 집(domus dei) 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domus ecclesiae)임을 충족시킨다. 위에 제시한 예배 공간 변혁을 위한 세 가지 시도는 앞으로 실제 교회건축에 적용하며 계속 보완되어야 하겠다.

진정한 예배공간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되고 거룩/신성함을 경험하는 곳이다. 개신교의 예배는 말씀 선포와 성찬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그 곳에서 옛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구체화된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 참 그리스도의 신분을 형성하도록 연출되어야 한다.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구원의 감격을 믿음의 도를 통하여 예배 안에서 성도들에게 전하도록 부른 받은 자들이다(유다서 1:3), 우리가 예배공간에서 세상의 영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갈망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은혜들을 부어 주실 줄 믿는다(고전 2: 12).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에 시달려 기진맥진 한 후 불평과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를 구하게 된다. 그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슥 4:6) 즉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고전 2:4)' 으로 됨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11:17)하시며 70인을 선정하여 모세를 도왔다. 위에 제시한 여러 제언들이 목회자들을 위해 돕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구들의 일부로 쓰여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하나님의 거룩/신성함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이 창출되길 바란다.

Bibliography:

- The Book of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1996.
- Ted A. Campbell and Michael T. Burns, *Wesleyan Essentials in a Multicultural Society* (Nashville: Abingdon Press, 2004).
- Catherine Bell, *Ritual Theory, Ritual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 (New York: Basic Books, Inc., 1973).
- Jeanne Halgren, *When Church Become Theater: The Transformation of Evangelical Architecture and Worship in 19th century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Walter C. Huffman, "Liturgical Space: Faith Takes Form" in Thomas H. Schattauer, ed. *Inside Out: Worship in an Age of Miss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9).
- William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A Study of Human Nature*, Martin E. Marty ed. (New York: Penguin Book, 1982).
- Paul Jeffery, *The City Churches of Sir Christopher Wren* (London: The Hambledon Press, 1996).
- Debra Dean Murphy. *Teaching That Transforms: Worship as the Heart of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chigan: Brazos Press, 2004).
- Jürgen Moltmann, *The Spirit of Life: A Universal Affirm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Rudolf Otto, *Idea of Holy: An Inquiry into Non-Rational Factor in The Idea of The Divine and Its Relation to Rational*, John W. Harvey Tra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1923]1958).

Paul Tillich, *On Art and Architecture*, John Dillenberger ed. (New York: Crossroad, 1987).

Bruce T. Riley, *The Psychology of Religious Experience in its Person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s* (New York: Peter Lang, 1988).

James F. White, *Protestant Worship: Traditions in Transiti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7).

James F. White and Susan J. White, *Church Architecture: Building and Renovating for Christian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88).